

## 사례1. AI 로펌

### 설명 :

최근 발생하는 사건사고 관련 재판 기사에서, 판사가 선고한 형량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들을 많이 발견했다. 만약 ai가 판사와 변호사를 대신한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의 업무를 대신해주고 재판 결과까지 예측해주는 로펌 인공지능을 구축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생각해보았다.

우선, 로펌 인공지능은 변호사 대신 대량의 법률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사무자동화 작업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사건 기록 속에서 스스로 쟁점을 추출하고 관련 판례와 법령까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정보를 찾아주는 일을 변호사 대신 로봇이 진행하면 많은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또한, 로펌 인공지능은 딥러닝 기술을 통해 마치 판사처럼 법률 사건에 관한 판단과 분석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하고 정확한 법률 데이터(판례) 확보가 필수적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분쟁 사안을 입력하면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안에 재판 결과까지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ai의 판결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시점에는, 인간 판사는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사 대신 직접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는 부부에게 로펌 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공지능이 현존하는 100만건의 유사 판례를 분석한 결과 당신들은 재판을 하더라도 5:5로 재산분할을 하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결과를 듣고 이들은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재판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로펌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들의 로펌 비용과 법률 분쟁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기술 : 자연어 처리, 머신 러닝, 패턴 분석, 빅 데이터

### 토론 내용 :

O. 로펌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이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예측 결과를 얻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일반인들의 재판에 대한 부담감도 줄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O. 재판 결과 예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사용자는 자신의 분쟁 사안을 직접 입력하거나 키워드 검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사례2. 스마트 미러, 스마트 카메라

### 설명 :

온라인 쇼핑 시장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2021년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의 평균 반품률은 20.8%를 기록했다. 5명 중 1명은 제품을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멧 세킵 알투스 조지메이슨 대학 교수는 “과거 소매업자들은 판매 후에 일을 관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반품률이 크게 높아졌고, 이는 더이상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100번 보는 것 보다 오프라인으로 제품을 1번 입어보는 것이 좋은 제품을 고르는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옷을 구입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면, 옷을 입어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며 10번도 채 입어보지 못하고 소비자들이 지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소비자가 옷을 직접 갈아입고 나오지 않고도 옷 입을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다면 소비자는 하루에 수십벌의 옷을 입어본 효과를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소비자의 피부 톤, 키, 체형 등을 분석해 다양한 컬러와 제품을 추천해준다면 소비자는 시간을 단축하고 더 쉽게 지갑을 열게될 것이다.

기술 : 컴퓨터 비전, 지식기반 시스템, AR(증강현실)

토론 내용 :

- O.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학습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상의를 선택했을 때 상의와 어울리는 하의를 추천해 주거나, 옷과 어울리는 악세서리를 추천해주면 좋겠습니다.
- O. 범위를 옷으로 한정하지 않고, 테스트 해보기 어려운 헤어 스타일, 화장품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O.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원하는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APP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O. 길거리에 AR 거울을 설치하여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제품을 입은 것 처럼 거울에 비춰주면 효과적인 홍보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례3. AI 키오스크

설명 : 요즘 대부분의 카페에는 키오스크가 있다. 주문을 사람 대신 기계가 받는 것이다. 그런데 메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0%가 주문이 늦어질 경우 뒷 사람에게 눈치가 보인다고 답하였다. 또한 매장마다 어떤 음식이나 음료가 맛있고 인기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뉴를 추천 해주는 키오스크를 생각해보았다.

메뉴를 추천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로는 기온, 날씨, 계절 별 주문 내역, 시간대 별 주문 내역 등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차가운 음료를 주문하는 수가 증가하면 날씨가 더울 것이라 판단하고 해당 음식들을 키오스크 최상단에 배치 시킨다. 반대로 뜨거운 음료를 주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어떠한 음료를 주문했을 때 추가로 주문하는 상품들을 분석하고 해당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손님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할 필요 없이 인기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른 메뉴를 적재적소에 추천할 수 있어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

기술 : 데이터 마이닝, 패턴 인식, 머신 러닝, 빅 데이터

토론 내용 :

- O. 실제로 키오스크가 있는 매장에 가면 키오스크의 수는 매우 적지만 한 사람당 메뉴를 고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뉴 추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매장에 어떠한 메뉴가 인기 있는지 또, 현재 날씨, 시간, 계절에 따라 어떤 메뉴가 좋을지 알려주어 빠르고 편하게 메뉴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O. 특정 상황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의 메뉴 별 총 주문수를 데이터로 축적시켜 실시간으로 메뉴를 인기순으로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